

[T-3]

청계노조의 탄생

전태일의 고민이 ‘전태일의 정신’이 되기까지

[T-3-1] 평화시장의 바보들 [T-3-2] ‘바보회’ [T-3-3] ‘삼동회’ 친구들 [T-3-4] 청계천의 어머니 [T-3-5]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탄생

[안재성]

안재성 | 1960년 경기 용인 출생. 강원대학교를 중퇴하고 구로공단과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했으며 1985년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선전부장을 지냈다. 1989년 장편 소설 『파업』으로 제2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황금이삭』, 『경성트로이카』, 『연안행』,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시』 등 다수의 장편 소설을 펴냈다.

[T-3-1]

평화시장의 바보들

1960년대 후반, 서울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에는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1,400개가 넘는 공장에서 27,000여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삶은 가혹했다. 봉제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적게는 14살부터 많아야 20대 후반이었다. 공장주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도 성수기 때는 밥먹듯 철야작업을 시켰다. 미싱 보조나 재단 보조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부려 먹었기 때문에 따로 방을 얻을 돈이 없어 대부분 비좁은 먼지 구덩이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야 했다. | 이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려는 본격적인 노력은 1968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평화시장 한미사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전태일은 마르고 작은 체구에 걸음이 무척 빠른 청년이었다. 청년들 사이에 귀를 덮는 장발과 청바지, ‘청카바’(데님 재킷)가 유행이었으나 전태일은 넥타이 없는 양복을 즐겨 입었고 머리칼도 단정히 다듬고 다녔다. 욕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선한 성품이었으나 말솜씨가 좋아서 어디서든 침착하고 조리 있게 말할 줄을 알았다. | 김영문은 평화시장에서 전태일과 가장 친한 친구였다. 김영문은 1950년 생이라 1948년 생인 전태일보다 2살이 적었으나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어찌다가 쉬는 일요일이나 여름 비수기 때면 다른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장충단 공원에서 공놀이를 했다. 한번은 다 같이 금곡릉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전태일은 양 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몸을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개다리춤의 대가여서 친구들에게 폭소를 선사했다.

1968년 12월, 전태일이 21살, 김영문이 19살 때였다. 언제나처럼 점심 시간에 김영문의 공장에 놀러온 전태일이 서울대 음대(서울대 음대 교사는 1959년부터 1976년 2월까지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있었다. 지금의 훈련원공원에 포함된다.)가 내려다보이는 복도 창가에 서서 말했다. “영문아, 재단사 몇 명이라도 단체를 만들어 요구하면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업주들이 정 말을 안 들으면 평화시장 3만 근로자가 일제히 데모를 하면 배겨 낼 재주가 있겠어?” | 김영문도 평소에 평화시장 노동 조건에 불만이 많던 한 명이었다. 망설이지 않고 찬성했다. 대인 관계가 좋았던 두 사람은 며칠 만에 또래 재단사를 10명이나 모을 수 있었다. 전태일이 데려온 이가 7명, 김영문이 데려온 이가 3명이었다. 동화시장 아래 은하수다방에서 모인 친구들에게 전태일은 평화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단사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평소에 알던 사이라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T-3-2]

‘바보회’

‘바보회’—두 번째 만남에서 전태일이 제안한 모임의 명칭이었다. 평화시장에서 근로 조건 개선 투쟁을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말을 들은 전태일이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되자며 제안한 이름이었다. 참석자들은 기꺼이 평화시장의 바보

들이 되었다. | 바보회의 결성식은 동대문운동장 건너편에 있던 덕수중학교 근처의 허름한 중국 식당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러 회원의 제안에 따라 바보회의 목표도 세워졌다. 공장 내의 다락방 철거, 근로 시간의 단축, 작업장에 전등을 환하게 밝힐 것 등이었다. | 바보회 활동은 1969년 여름까지 이어졌다. 전태일은 바보회 회장이라는 명함까지 만들어 작업 현장에 돌리며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상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니 ‘재미있는 친구’라고 불렀다.

바보회가 깨진 것은 그 해(1969년) 늦여름이었다. 평화시장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해 설문지 300매를 인쇄해 바보회원들이 돌렸는데 겨우 100장을 돌렸을 때 업주들에게 저지된 것이다. 수거에 응한 노동자는 겨우 30명에 불과했다. 바보회원들은 이를 들고 노동청 근로 감독관을 찾아갔으나 쓸데 없는 짓을 한다며 면박만 당하고 말았다. 이 일로 바보회원들은 각자의 공장에서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모임은 자연히 흩어지고 말았다. | 사장들에게 찍힌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좌절한 그는 그 해 가을 평화시장을 떠나 북한산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삼각산의 기도원 공사장에 잡부로 들어가 고된 노동을 하며 실의를 달랬다.

[T-3-3]

‘삼동회’ 친구들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돌아온 것은 10개월이 지난 1970년 여름이었다. 시간이 흐른

덕분에 사장들의 주목을 덜 받게 된 그는 왕성사 재단사로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막노동판에서 고생하고 왔음에도 전태일의 표정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고 명랑했다. 이번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는 김영문이었다. 처음 바보회를 만들 때처럼 불쑥 김영문의 공장에 찾아가 복도로 불러 낸 전태일은 다시 재단사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김영문은 이번에도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다시 주변의 재단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금방 12명이 모였다. 바보회원 중에 남은 6명과 새로 사권 6명이었다. 새로 가담한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신진철, 주현민, 조병섭**은 하나같이 체격이 좋은 데다 활동적이고 괄괄한 성격에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정의파들이었다.

1970년 9월 16일,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었다. 명칭은 ‘삼동회’로 정했다. 동대문 일대의 8개가 넘는 의류 상가 중 가장 큰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다. | 이번에도 전태일이 회장으로 뽑혔고 임현재가 부회장을, 이승철이 서기를 맡았다. 모두들 전태일과 같은 23살 안팎의 청년들이었다.

삼동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작년에 바보회가 끝을 맺지 못했던 설문 작업이었다. 용감한 삼동회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설문지를 나눠 주고 받으려 다녔다. 며칠 만에 126매나 수거할 수 있었다. 삼동회는 설문을 토대로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 개선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장 앞으로 보냈는데, 진정인으로 서명을 해 준 노동자도 90명이나 되었다. | 삼동회는 이 진정서를 여러 신문사에도 보냈는데 다음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진정서를 토대로 쓴 기사가 게

재되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제목 아래 청계천 봉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룬 기사를 전면에 실었다. | 삼동회원들은 곧바로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로 달려갔다. 신문을 사서 평화시장에 돌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신문 한 부가 20원이나 되었다. 최대한 많은 신문을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다. 이 때, 최종인이 자기 손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러 내놓았다. 탱크 시계라 불리던, 비싼 시계였다.

신문 300부를 사온 삼동회원들은 종이를 조끼 모양으로 자른 다음 ‘평화시장 기사 특보’라고 붉은 글씨로 써서 입고 다니며 소리를 쳤다. “평화시장 기사가 실렸습시다! 꼭 읽어 보십시오!” | 정가대로 20원에 팔았고 돈 없는 시다에게는 그냥 주기도 했는데, 어떤 재단사는 자신의 며칠 분 임금인 거금 1,000원을 냈다. 수고했다며 100원, 200원을 내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신문은 금방 다 팔렸고 시장 안에는 널리 소문이 퍼졌다. 시장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평화시장 사장이 삼동회를 불렀다. 1970년 10월 8일이었다. | 전태일, 이승철, 김영문이 대표로 평화시장 옥상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사장을 만나 삼동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 사항은 작업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할 것, 휴일을 지킬 것, 부득이한 초과 근무에는 수당을 지급할 것,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할 것, 시다 임금을 두 배로 올릴 것, 다락방을 철폐하고 환풍기를 설치할 것, 조명 시설을 개선할 것, 여성들의 생리 휴가를 보장할 것 등이었다. | 사장은 요구 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환풍기 설치와 형광등 교체는 힘써

보겠다고 답했다. 만족스런 답변은 아니었지만 요구의 일부라도 들어 주겠다는 사장의 답변은 삼동회원들을 고무시켰다. | 노동청 근로 감독관도 삼동회원들을 불러 「근로 기준법」 위반 업체를 자기네가 고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신 삼동회원들은 공장에 취업하라고 했다. 그러면 1주일 내로 다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 삼동회원들이 취업을 하면 이런 일에 나설 시간이 없으리라는 속셈에 불과했으나 순진한 회원들은 곧이곧대로 이 말을 믿었다. 최종인과 임현재는 서둘러 취직을 했고, 왕성사에서 해고되어 있던 전태일도 삼미사에 취직했는데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재단사가 아닌 재단 보조로 들어갔다.

하지만 약속한 1주일도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소한 환풍기 설치나 형광등 교체 정도는 해 줄 줄 알았던 삼동회는 크게 실망했다. 마침 10월 20일이 노동청에 대한 국정 감사일이었다. 삼동회는 노동청에 압력을 넣기 위해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설득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 그러자 근로 감독관이 다시 사정하다시피 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삼동회는 다시 한 번 노동청을 믿고 시위 계획을 철회했다. | 근로 감독관의 설득이 오로지 국정 감사를 피하기 위한 속셈이었음은 곧 드러났다. 근로 감독관은 삼동회원들을 불러 밥을 사 주며 말했다. 며칠 전과는 말투부터가 달랐다. “너희의 요구 조건은 당초부터 무리야. 평화시장에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 포기해.”

분개한 삼동회는 가두 시위를 재추진했다. 시간은 1970년 10월 24일 오후 1시, 장

소는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이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두 개의 건물로 나뉜 평화시장을 잇는 구름다리가 있는 곳으로, 점심 시간이면 일 자리를 알아 보기 위해 나온 노동자들로 붐벼 인력 시장이라고 불렸다. | 삼동회원들은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니며 시위 소식을 전했다. 시작은 전태일이 했으나 모든 일을 그가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전태일도 삼동회원의 한 명일 뿐이었다. 설문 조사부터 가두 시위 준비까지, 삼동회 친구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뛰어 다녔다.

약속한 1시가 되었을 때 구름다리 아래에는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처럼 일 자리를 찾아 나온 이들도 있었지만 데모가 벌어진다는 말에 구경이라도 하려고 나온 노동자도 많았다. 그러나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들과 평화시장 간부들의 계략 때문이었다. | 평화시장 경비실은 2층에 있었는데 형사와 회사 간부들이 그 곳으로 삼동회를 부른 것이었다. 무언가 협상을 기대하고 올라간 삼동회에게 그들은 11월 7일까지 요구를 다 들어 줄 테니 시위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언쟁을 하는 사이, 구름다리 아래 모였던 노동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

예상대로, 11월 7일이 왔다. 여전히 회사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늘 밝던 전태일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김영문의 공장에 찾아온 그는 복도 창가에 서서 말했다. “영문아, 최소한 세 명은 죽어야 이 일이 성사되지 않겠냐?” |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 삼각산에서 돌아온 이후 몇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평화시장이 바뀔 거라고 말해 온 전태일이었다. 그 때마다 김영문은 그를

“달래려 애썼다. “태일아, 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나?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 이번에도 야단치며 말리면서도 김영문은 그가 정말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는 뜻 정도로만 해석했다. 전태일도 다른 삼동회원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회사의 거짓말이 드러난 후, 삼동회원들은 은하수 다방에 모였다. 일 다니는 회원들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 모였는데 통행 금지 시간이 임박해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이 자리에서 전태일은 11월 13일에 ‘근로 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켜지지도 않는 노동법 책을 불태워 버리자는 것이었다. | 베트남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승려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있었으나[티짱득(Thích Quảng Đức, 1897~1963년) 스님이 남베트남(월남)의 불교 탄압에 맞서 1963년 6월 11일 사이공에서 소신 공양(燒身供養: 자기의 몸을 불살라 부처 앞에 바치는 일)을 한다. 그 분신 사진이 서방 세계로 타전되면서 미국은 남베트남 독재 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쿠데타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같은 해에 5명 이상의 베트남 스님이 분신했고, 이듬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자, 여러 미국인이 전쟁에 반대하며 분신을 따라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분신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전태일이 분신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던 삼동회원들은 그의 제안에 가볍게 찬성했다. 「근로 기준법」 책을 태우기 위한 휘발유를 한 통 사고,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도 여러 개 만들기로 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국민은행[국민은행 평화지점은 평화시장 2개동 사이, 오늘날 버들다리(전태일다리) 남동쪽에 면해 있었다. 현재의 평화상가 5번 입구 근처다. 국민은행 평화지점은 1973년 9월에 현재의 위치(KB국민은행 동대문패션타운지점, 동화상가 남단)로 이전하여, 간혹 분신 장소가 동화상가로 잘못 기록되기도 한다. | “국민은행 앞길은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평화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끼리 만나는 약속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고, 직장을

국민은행 앞 전태일 분신 현장

『전태일 평전』의 기록과 친구 김영문의 기억이 다소 다르다. 김영문의 기억에 따르면,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즈음 평화시장 3층에서 내려온 전태일은 국민은행 쪽으로 가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김영문의 구술이다. “예, 그 날 3층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경비실은 2층이고, 3층에 왕성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죠. 친구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전날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근로 기준법」 필요 없으니 화형식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휘발유도 준비를 해야 하고, 플래카드도 형겅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것도 만들어야 했죠. 전날 밤에 제가 듣기로는 태일이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거기서 자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평화시장 3층에서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할 일이나, 어떻게 할지, 언제쯤 내려갈 건지 등등. 사람들이 모이면 내려가는 거다 하면서 플래카드를 꺼내더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아래층 경비실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와서, ‘너네들 이거 불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플래카드를 뺏으려고 하니깐 서로 실랑이를 했죠. 결국 플래카드를 뺏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이 ‘다 담배 가게로 내려가 있어라.’고 해서 저희는 다 내려왔습니다. 한 5분, 10분 사이인 것 같아요. 전태일이 정문으로 내려오면서 담배 가게 앞에 서 있는 우리 중에 나를 불러요. ‘야, 영문아 이리 와.’ 하더니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국민은행 쪽으로. 제가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태일이랑 나랑 1m 정도쯤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을 붙여 버린 거예요. 말릴 새도 없었어요. 순식간이잖아요. 딱 몇 초예요.”



1960~1970년대 당시 국민은행이 있던 평화시장 상가 주변 풍경. 청계천 쪽에서 남측 방향을 향해서 촬영한 듯하다. [(주)평화시장 자료]

『전태일 평전』의 기록과 김영문의 구술이 다른 점에 대해 『청계, 내 청춘』에서 안재성은 이렇게 설명한다. “김영문이 전태일을 따라가더니 불길이 일었다는 정황 때문에 분신 순간을 정확히 볼 수 없었던 삼동회 회원들은 김영문이 불을 붙여 준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 초판에는 김영문이 김개남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해 전태일의 요청에 따라 라이터 불을 붙여 준 것으로 나온다. 김영문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그날 전태일을 따라가기는 했어도 불을 붙일 정도의 거리도 되기 전에 그의 몸에서 먼저 불길이 솟았으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다.”

오늘날 ‘전태일 분신 장소’ 표석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48, 평화시장 A동과 B동 사이 대로(청계천로)에 있다.

구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또는 업주들이 고용할 노동자를 구하는 노동력의 거래가 이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일이 많아서 언제부터인지 노동자들은 이 곳을 ‘인간 시장’이라고 불렀다.”(조영래, 『전태일 평전』) 앞에는 이 날도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삼동회원들은 이번에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3층에 모여 있다가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일제히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또 다시 정복 경찰과 형사들에게 가로막혔고, 종이로 만든 플래카드는 찢어져 못 쓰게 되었다. 시위는 무산되었고, 실망한 이승철 등은 오후 작업을 위해 서둘러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전태일이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서 뛰쳐 나왔다.🎧-[T-3-0] 손에 들고 있던 「근로 기준법」 책자에도 불이 붙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이, 전태일은 앞으로 내달리며 소리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불길이 폐로 들어가 숨이 막힌 전태일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직 현장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던 최종인과 김영문이 잠바를 벗어 불길을 잡았다. 기진해 쓰러져 있던 전태일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며 무어라고 중얼거렸으나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급히 불러온 택시에 그를 싣고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했다.

[T-3-4]

청계천의 어머니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아들의 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오후 2시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였다.

전태일은 이소선과 전상수 사이의 2남 2녀 중 맏아들이었다. 아버지 전상수는 대구 출신의 봉제 노동자였다. 기술이 좋다 보니 독자적인 사업을 벌여 한때는 돈을 잘 벌었지만 결국은 실패해 가족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했다. 전태일은 잦은 이사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민학교(公民學校)〔공민학교는 초등학교 다닐 시기를 놓친 사람을 위한 교육 기관이며,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를 위한 학교는 고등공민학교다. 전태일은 1963년 대구명덕국민학교 안에 가교사를 두고 있던 청옥고등공민학교에 입학했다.〕에서 잠깐 중학교 과정을 배운 후 어린 나이부터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게 된다. | 전태일이 빈곤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겪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청계천 봉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14살 때부터 노동을 시작한다. 인구 100만 명을 갓 넘은 서울의 대부분이 판잣집으로 뒤덮인 빈민가였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이 남달랐던 것은 남보다 고생을 더 했다는 점이 아니었다. 그의 특별함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였다.

전태일은 미싱사와 미싱 보조들의 참담한 모습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미싱을 배운 그는 금방 미싱사가 되어 제법 많은 월급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재단사로 직종을 바꾼다. 재단 기술을 배우려면 보조로 들어 가야만 하고, 그러면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소선 어머니가 왜 갑자기 재단사가 되려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우리 공장 미싱사와 시다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돈은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이 억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재단사가 되어야 해요. 재단사가 되어야 사장과 협상해서 미싱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가 있어요.” | 이토록 착한 아들이었으나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사람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단사가 된 전태일은 사장에게 미싱사와 시다들의 임금을 더 주도록 요구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핀잔뿐이었다. 오히려 그가 밑에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해 준다고 해고를 시켜 버렸다. 몇 군데서 해고를 당하면서 사장들에게 골치 아픈 재단사로 낙인 찍혀 시장에는 취업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은 본격적으로 노동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노동법 책자들을 구입해 공부하는 한편으로 바보회를 결성했던 것이다. 설문지 사건으로 바보회가 해산된 후 삼각산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던 그가 평화시장에 돌아왔을 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바쳐 청계천 노동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을 것이다.

이소선이 을지로 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전태일은 얼굴까지 온몸이 붓대로 감겨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살아 있었다.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시다의 한 달 월급과 맘먹는 비싼 노동법 책을 사 주었던 이

소선이었다. 아들이 평소 어떤 세상을 원했가를 잘 알던 어머니였다. 아들이 분신까지 한 뜻이 무엇인지, 아들의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려 애썼다. | “어머니, 저를 원망하십니까?” | 힘겹게 나오는 아들의 질문에 이소선은 아들의 얼굴을 감은 붕대를 어루만지며 답했다. | 나는 너를 이해한다. 어찌 원망하겠니? 원망하지 않는다.” | 전태일은 마음을 놓으며 부탁했다. | “어머니! 제가 못 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 “그래, 아무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어코 너의 뜻을 이룰게.” | 진정 어린 약속이었다. 전태일은 세 번이나 거듭 물었다. “정말이지요? 어머니가 해 주실 거지요?”

이소선은 거듭 다짐을 했다. 죽어 가는 아들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전태일은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또 강한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과 다른,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소선이 가족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보통의 이기적이고 겁 많은 어머니였다면, 결코 자신의 뜻을 대신해 싸워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렇게 그녀는 청계천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에게 할 말을 마친 전태일은 친구들을 불러 달라고 했다.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김태원 등은 이 때 파출소에 끌려가 있었다. 전태일이 분신한 직후 혈서를 써 들고 시위를 하다가 잡혀간 것이었다. 김영문 등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던 삼동회 친구 몇이 병상 앞에 섰다. 전태일은 그들에게도 부탁했다. |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전태일은 친구들에게도 거듭 약속해 달라고, 맹세를 하라고 했다. 친구들

은 세 번이나 큰 소리로 맹세를 하고서야 조용해졌다. 삼동회 친구들은 그렇게 평생을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배가 고프다.”

전태일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 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1970년 11월 13일,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T-3-5]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탄생

이소선은 아들과의 약속대로 노동 조합의 결성을 보장할 것 등 8개 항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중앙정보부는 경찰과 평화시장 사장을 통해 이소선을 달래려고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이소선은 돈뭉치를 허공으로 훌뿌리며 거부했다. 나중에는 동대문 근처에 3층 건물을 사고도 남을 거액을 제시했으나 이소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태일의 어머니가 장례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학가에도 알려졌다. 동대문에서 멀지 않았던 서울대에서 추도식이 열리고, 학생들이 영안실에 찾아와 학생장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이소선이 학생장을 승낙하여 사태가 커지게 되자 중앙정보부는 영안실에 몰려온 학생들을 연행하는 동시에 노동 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고 3



© (Suryuanbang) Lee Jeeyoung

개의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신 5일만인 1970년 11월 18일, 전태일이 다니던 쌍문동 창현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묘지는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에 마련되었다. 지금은 잘 가꾸어진 공원 묘지가 되었으나 당시 모란공원은 온통 붉은 흙이 드러난 황량한 공동 묘지였다.

장례식 바로 다음날, 이소선과 삼동회원들은 노동 조합 사무실을 주기로 한 평화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노조 사무실로 내주겠다던 세 군데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열려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 앞에는 남자들이 지키고 서서 비켜 주지 않았다. | 분개한 이소선과 삼동회원들이 평화시장 사무실에 몰려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자 겨우 평화시장 옥상에 있는 사무실 하나만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가 보니 경비들이 아예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막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다. | 경비들에게 밀려난 이소선과 삼동회원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국회에 쫓아가 시위를 하기로 했다. 막상 국회에 달려갔으나 경찰에 막혀 의사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도 이 소식이 신문에 실려 전국에 알려지자 골치 아파진 정부는 평화시장 옥상의 사무실을 내주도록 했다. 책상 서너 개 놓으면 딱맞는 좁은 공간이지만 투쟁으로 얻은 귀중한 성과였다.

마침내 1970년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태일이 죽은 지 꼭 2주일 되던 날이었다. | 지부장으로는 한국노총에서 일했던 김성길이 선출되었고, 부지부장에는 최종인·임현재·장병화·장정운, 사무장에 하인수가 선출되었다.

회계 감사에 양태종과 신진철, 운영 위원에는 황종옥·이승철·김태원·박명옥·주현민·서윤석·신기호·정상민·김부기가 선출되었다. 총무부장에는 신기호, 조직부장에 이승철, 교선부장에 최종인, 법규부장에 서윤석, 부녀부장으로는 김명례가 지명되었다. | 첫 집행부 구성원의 성향은 다양했다. 삼동회원이 여럿 들어가 있었고 박명옥, 김명례 등 자기 발로 찾아온 순수한 여성 노동자도 있었으나 사실상 불량배나 다름 없던 한국노총 출신의 전문 노조꾼도 여럿 들어와 있었다. 결성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탓이었다.

노동청에 올린 신고서에는 조합원 560명을 대표한 56명의 대의원이 창립식에 참석했다고 보고했지만, 조합원 숫자는 엉터리였고 대의원도 이승철이 자기 공장에서 15명을 데려 와 머릿수를 채우는 등, 청계천 일대 27,000여 피복 노동자를 대변해 군사 독재 권력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직이었다. | 그러나 청계노조에게는 자신을 지켜 주는 힘이 존재했다. 전태일 정신이었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소선 어머니와 삼동회원들이 있는 한, 청계노조는 어용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고,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었다. 1970년대 한국 민주 노조의 상징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탄생이었다.

〔T-4〕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T-4-1〕 저는 37년 경력의 미싱사이입니다 〔T-4-2〕 저를 도와 준 전태일의 친구들 〔T-4-3〕 전태일 50주
기,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 〔T-4-4〕 노동법은 저더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T-4-5〕 「근로기준법」
제11조·「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T-4-6〕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홍은희〕

홍은희 | 16살 때부터 53살(2021년 현재)인 지금까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38년 경력의 미싱사이자,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후신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의 조합원이다.

245

2020 전태일 50주기 ●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The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s Self-immolation

〔T-4〕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홍은희〕

244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T-4-1]

저는 37년 경력의 미싱사입니다

대통령님…. | 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에 소재한 서울봉제인지회 조합원 52살의 홍은희입니다. 직업은 의류 계통의 미싱사로, 37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은 도심의 동대문패션타운에서 벗어난 중구 신당동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는 8명이 작업하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6시까지 일합니다. 1주일에 80시간입니다. 법정 노동 시간의 두 배입니다. | 노동자가 5인이 넘으니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사장은 우리더러 객공(客工)(傭시로 둔 직공. 일하는 시간이나 능률 등에 따라 값을 받는 사람.)이 무슨 근로 계약서냐고 개인 사업자를 내리면서 외면합니다. 공장이 영세하다 보니 사장에게 이견 이렇고 저견 저렇다고 따지기도 힘듭니다. 사장도 일하니까요. 중국에서 싼 옷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단가는 자꾸 깎이고 일감도 줄어듭니다. 일감이 떨어지는 철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T-4-2]

저를 도와 준 전태일의 친구들

열여섯 살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다였습니다. 사장이 주는 ‘타이밍’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상태를 각성시킴으로써 졸음, 피로감을 개선하는 약.]을 삼키고, 아침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락방에서 일했습니다. 밥도 공장 안에서 먹고, 잠도 공장 안에서 잤습니

다. 일요일에도 밖에 못 나갔어요. 바쁜말 잘하는 동료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사장에게 대들었다가 뺨이 터지도록 맞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바로 전태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 청계피복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싸워 준 덕분에, 반 년 넘게 밀렸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이 경찰에 머리카락을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 남성 조합원들이 달려와 구해 줬어요. 해고는 일상이었고, 노조 사무실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까무러친 언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독재 너머로 환하게 빛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보였어요. 그 세상에 언제 닿을까 손가락을 꿈으며 살았습니다.

[T-4-3]

전태일 50주기,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락방도 사라지고, 작업장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도 생겼습니다. 구사대(救社隊) [노동 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 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도 백골단도 안 보입니다. 전태일 선배가 일했던 때처럼, 제가 시다로 시작했을 때처럼, 사장이나 관청이 강제로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세상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겠지요. |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옷을 몇 벌 만들었느냐로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일감이 없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 대목이 지나가면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날들이 몇 달이고 계속됩니다. 그럴 때 저는 완전 실업자 신

전태일 3법 제정

[by 가나다라abcd, 2020.12.2. | <https://lookthefinger.tistory.com/5>]

노동 후진국 한국 사회 : OECD 기준, 우리 나라 산재 사망률은 1위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1,101명이 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해 평균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갑니다. 아침 출근길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들이 매일 6명 꼴로 나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2019년 기준 2,024시간입니다. OECD에서 우리보다 노동 시간이 긴 유일한 국가인 멕시코로, 2,258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OECD 평균보다 35일이나 더 일하는 국가입니다. OECD 평균 노동 시간은 1,700시간입니다. |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될 때, 기업들이 내는 평균 벌금은 450만 원 가량이며,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의 제벌률은 97%입니다.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이 거의 없고, 또 거의 모두가 정해진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제벌률은 43%입니다.

전태일 3법 : ‘전태일 3법’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근로 기준법」 11조 개정, 「노동 조합법」 2조 개정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하청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노동자뿐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을, 다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요소가 적발되면,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근로 기준법」 11조 개정 : 「근로 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 기준법」 일부 조항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부당 해고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도, 휴가에 대한 법률도, 연장 근로에 대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악용하여, 회사를 일부러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키는 기업도 많습니다. 「근로 기준법」 11조 개정은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주어진 퇴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5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노동 조합법」 2조 개정 : 지금의 「노동 조합법」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범위가 협소하여 사회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하청과 도급이 일상화된 고용 시장에서, 원청 사용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는 「노동 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모든 업무 지시와 원청에서 받아온 업무를 진행하지만, 법률적으로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와 단체 교섭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 고용된 노동자는 34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200만 명 이상의 ‘특수 고용 노동자’ 역시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이 이들과 단체 교섭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에도 물류 기업들이 별 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하다 죽고 과로사로 죽는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 성인이 된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로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에 맞지 않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쓴 나라이기도 합니다.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EU에서도 촉구 서한을 보내기도 합니다. 복지 국가라는 스웨덴 기업의 IKEA도, 툴레랑스의 나라라던 프랑스의 카르푸도, 한국에 와서는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에 앞장섭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드 되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보수, 경제 언론이 여론 물이를 항상 담당해 주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정치인들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하다 죽고, 과로사로 죽는 사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3법’은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세이지만, 실업 수당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기관지 병을 달고 살지만, 산재 보험 신청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열여섯 살 때부터 뼈가 휘도록 일했지만, 퇴직금은 언감생심입니다. 37년 경력의 미싱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법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된 건가요? | 퇴직금을 받으려고 동료가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근로 감독관은 사장과 합의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쪼들리는 걸 서로 뻔히 아는데, 무슨 합의를 해요? 노동부에 들락거릴 시간에 차라리 미싱 돌리는 게 낫다는 걸 깨달은 동료는 그저 가슴만 쳤습니다. 이럴 때 노조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두세 명이 어떻게 노조를 꾸려요? 우리처럼 영세한 공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일을 배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태일 50주기인 2020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민을 하루 14시간의 작업에 내몰 수 있습니까?

[T-4-4]

노동법은 저더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만 봉제 노동자들이 9만 명인데, 대다수가 저와 같은 처지입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근로 기준법」 11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뭔가를 해 보려 해도, 이번에는 「노동 조합법」 2조가 가로막습니다. [🔊-[T-4-0)] 임금으로 먹고사는 저는 노동자가 분명한데, 정작 노동법은 저더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 30년이 지났건만, 그 동안 ‘근로 계약서’ 한 번 써 본 적이 없습니다. | 저는 올 「

해 천두 살. 스물두 살의 전태일 선배처럼 피 끓는 청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옷을 만들어 온 미싱사로서,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젊은 날 몸담았던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후신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에 가입 원서를 썼습니다. | 전태일 선배가 그랬고,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그랬듯이, 저의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작업장의 막내가 사십 대 중반입니다. 다른 곳도 다 똑같습니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공장,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일터에 젊은이들이 일하러 올까요? 봉제 노동자들의 대가 끊기면 우리 나라는 국민이 입을 옷을 모조리 수입해야 합니다. 부자는 명품, 서민은 유니클로. 이렇게 구별되는 사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 60년 전 전태일 오빠는 학교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저는 시다로 시작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편의점 알바와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시작합니다. 저는 비록 맞아 가면서 봉제 기술이라도 익혔지만, 이 청년들은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서 아무런 기술도 배우지 못합니다. 만일 드론이라는 게 배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라이더 일도 사라질 그 때는 대체 무슨 일이 남겠습니까?

[T-4-5]

「근로 기준법」 11조 · 「노동 조합법」 2조 개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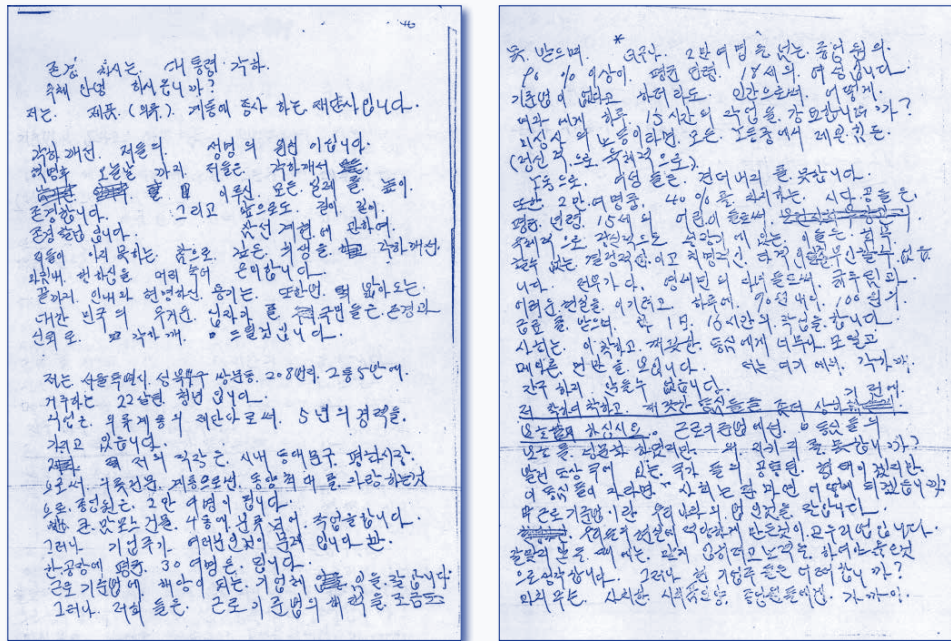
대통령님께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뉴스에

서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대통령님 혼자에게만 미루는 건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있는 일자리를 개선하십시오.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3,587,000명입니다. 교섭권 행사를 제약받는 간접 고용 노동자가 3,465,239명입니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가 2,209,343명입니다.

저희의 요구는 대통령님께서 「근로 기준법」 제11조와 「노동 조합법」 제2조 개정에 즉각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연 평균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2,323명입니다. 하루에 7명이 죽어 갑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죽음의 행군을 멈춰야 합니다. 전태일 선배 곁에 누워 있는 용균이 어머니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

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32.1%, 전체 사업체의 79.8%)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처벌 특혜 규정과 발주처 공사 기간 단축과 일터 괴롭힘 문제 등 실제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조항들은 삭제되었다.] 하루 속히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십시오.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 1969년 11월.

[T-4-6]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우리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분제인지회]는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노조 가입 자격을 주었습니다. 노사가 서로 돕는 공제회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을 차곡 차곡 쌓아 봉제인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전태일 선배의 또 하나의 꿈이었던 ‘태일 피복’을 설립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 대통령님,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를 모아 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동자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대통령의 권력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치려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전태일 오빠는 끝내 편지를 부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부칩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경험해 봤기에,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태일의 후배 봉제 노동자 홍은희

[T-5]

전태일을 기억하다, 내 기억을 기록하다

50년, 그 사이의 일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T-5-0] 미상을 밝아 본 적 없는 이의 뒤엀킨 실타래 [T-5-1] 전태일이 내 일기장에 나왔다 [T-5-2]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T-5-3] 기억하기 위하여 [T-5-4] 풀빵 하나를 얻어 먹자 [T-5-5] 전태일기념관이 생겼다

[조병준]

조병준 | 시인, 문화 평론가, 여행가. 서울 낙산 아래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껏 머물고 있다. 문화 평론집인 첫 책 『나눔 나눔 나눔』을 펴낸 후,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오후 4시의 천사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를 미치게 하는 바다』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 『사랑을 만나러 길을 나서다』 『정당한 분노』 『기쁨의 정원』 등의 산문집, 그리고 시집 『나는 세상을 떠도는 집』, 사진 시집 『따뜻한 슬픔』 등 여행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열한 권의 책을 펴냈고, 최근 열두 번째 책 『퍼스널 지오그래픽』(수류 산방, 2021)을 출간했다. '내 마음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255

2020 전태일 50주기 ●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The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s Self-immolation

[T-5] 전태일을 기억하다, 내 기억을 기록하다 [조병준]

254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T-5-0]

미싱을 밟아 본 적 없는 이의 뒤엉킨 실타래

이제 경자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60년을 기다려야 한다. 1960년 쥐띠로 태어난 내가 60살이 되었던 해, 2020년이 지나갔다. 나와 띠동갑이라는 전태일이 살아 있었다면 2020년에 그는 72세가 되었겠지. 72세 할아버지가 되는 대신에 전태일은 22세 청년으로 영원히 남았다. 50년 전에도 늙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늙은 세상에 여전히 청년으로 살아 있다. 음력으로도 쥐의 해가 지나고 소의 해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쥐의 해에 붙들려 있다. 겁도 없이 전태일을 기억하는 글을 쓰겠다고 약속해 버리는 ‘바보’짓을 한 탓이다. 나이 60이 되었으니 전태일의 50주기를 추모하는 글 한 꼭지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삶에도 전태일과 연결되는 매듭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전태일보다 열두 해 늦게 태어났지만, 전태일의 삶만큼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험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나도 가난한 집의 아이였고, 몸을 쓰는 ‘노동’을 했던 청년기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내 유년과 청년기의 친구들 중에 전태일처럼 스스로 자신의 몸을 횡설로 만든 친구가 둘이나 있었기에, 그들이 그런 참혹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심정을 아주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다. 서울 낙산 언덕배기 동숭동 달동네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기에 동숭동과 이화동과 충신동과 창신동은 내가 잘 아는 동네라고, 청계천 평화시장의 배후 기지였던 ‘제품집’ 동네의 삶을 조금

은 안다고 생각했다. 전태일의 삶을 되짚으며 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전태일의 삶과 내 삶에는 아주 깊고 넓은 간격이 있었다. 내가 겪은 아픔, 슬픔, 분노, 절망 등등 정도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격이었다. 그냥 쉽게 고백하자. 전태일의 삶과 비교하면 내 삶은 ‘가질 만큼 다 가진 자’의 삶이었다. 그 알량한 몇 가지 경험을 전태일과 연결되는 매듭이라고 생각했던 건 나의 오만이고 무지였다.

바보 같은 생각으로 글쓰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결론이 났으면 차라리 잠시의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감내하며 글쓰기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지도 못했다. 전태일에게 진 ‘마음의 빛’ 때문이었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전태일로 대표되는 그 많은 ‘앞서서 나간 이’들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가난해졌을지,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삶이 되었을지를 잘 알기에, 그 빛을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조금이라도 갚아야 했기에, 나는 지금 뒤엉킨 실을 풀듯 내 삶에 들어온 전태일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어린 시절 엄마의 미싱 바늘에 실을 꿰어 보았을 뿐, 단 한 번도 미싱을 밟아 본 적 없는 내가 이 뒤엉킨 실을 어떻게 풀어 낼 수 있을까. 한 가닥씩 실마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실이 끊어지면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전태일 동상은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위에 세워졌다. 2005년 전태일 35주기를 맞아 임옥상이 조각을 맡고, 바닥에는 제작 비용을 후원한 시민들의 이름과 소망이 새겨진 3,800여 장의 동판이 깔렸다.

© JO ByoungJoan

[T-5-1]

전태일이 내 일기장에 나왔다

“꿈자리가 사나웠다. 사나운 꿈자리에서 달아나려고 눈이 제멋대로 떠진다.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꿈은 생생하고, 그런 꿈에 불씨를 당긴 현실의 사건들이 다시 머리를 채운다.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스위치를 켜는 순간, 스트레스를 북돋우는 소식들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래, 차라리 나가자. 걷자. 낙산공원이나 한 바퀴 걷자며 출발한 걸음이 동대문으로 이어진다. | 아직 동도 안 뜬 새벽길에는 이미 하루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동대문 건너 성곽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오늘의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구나. 온 길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다. 좀 더 걷자. 평화시장을 끼고 청계천을 걷는다. 버들다리 또는 전태일 다리가 보인다. 전태일, 1948~1970. 전태일의 흉상 옆에 ‘구루마’가 놓여 있다. | 구루마가 일본어이고, ‘수레’로 써야 옳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청계천 버들다리 전태일 상 옆에 놓인 그 수레에는 구루마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다. 1960년대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낡은 구루마. | 시아게, 오바로꾸, 시다.... 봉제업계에 여전히 살아 있는 그 일본어의 잔재들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엉뚱한 상상이지만, 그건 어쩌면 노동 계급의 저항일지도 모른다.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언어를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을 지키려는 안간힘. 그래, 가방끈 긴 너희들은 마무리, 오버로크 아니면 회갑치기, 견습생 아니면 인턴으로 써라. 우리는 우리 식으로 간다.... | 2018년에도 평화시장에는 여전히 구루마가 현재 진행형으로 굴러간다. 다리 난간에는 짐

나르기용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잠들어 있다. 노인이 구루마로 다가온다. 갑자기 부끄럽다. 부끄러움? 어쩌면 그조차 조금 더 길게 학교를 다니고, 그 덕에 매일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 수 있는 가진 자의 전방일 것이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스트레스 어찌고 엄살 떨며 괴로워하는 나는 이 이른 아침,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진다. 1970과 2018 사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는가.”〔2018.09.10.〕

그 날 무슨 꿈을 꾸었기에 꼭두새벽에 깨어난 건지는 물론 기억에서 지워졌다. 다만 블로그에 끄적인 일기 탓에 그 날 전태일을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남았다. 이 짧은 일기가 아니었다면 전태일이 그렇게 내 삶에 잠시 돌아왔다는 기억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은 그렇게 허술하다. 기록의 도움이 없을 때 기억은 아주 쉽게 왜곡되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삶에 기록이 필요한 이유다.

전태일의 흉상이 세워진 다리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청계천이 고가도로로 덮여 있던 시절에 나는 그 길을 술하게 지나다녔다. 짐자전거에 야채를 싣고 달렸다. 어머니 아버지가 충신시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셨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나는 아버지의 짐자전거 핸들을 잡아야 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경동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어와 충신시장 근처의 식당들에 배달을 하고 학교로 갔다. 저녁이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주문 들어온 야채를 배달하고 수금을 했다. 40년 전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다. 그 때도 평화시장과 동대문종합시장에는 자전거와 구루마가 있었다. 지게를 짊어지고 상가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짐꾼들도

있었다. 어느 저녁, 주문 들어온 야채를 싣고 가던 중 횡단 보도에서 멈추는데 어느 취한 양복 입은 중년 사내가 비틀거리더니 자전거에 부딪쳤다. 자전거가 쓰러졌고 야채가 쏟아졌다. 사내는 쓰러지지 않았다. 사내에게 사과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사내의 주먹이 얼굴로 날아왔다. 몇 대를 맞았는지는 기억에서 지워졌다. 내 멍살을 움켜쥔 사내의 입에서 어떤 욕설이 터져 나왔는지도 지워졌다. 기억에 남은 것은 그 때 내가 느꼈던 지독한 모멸감뿐이다. 자전거로 야채를 배달하는 짐꾼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욕설과 폭력….

구질구질한 라떼 타령이 또 나온다고 눈살 찌푸리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서 그만하자. 새벽에 잠이 깨어 하릴없이 걷다 만난 전태일의 흉상과 구루마와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지게를 보면서 40년 가까운 옛날 일이 기억났던 모양이다. 없는 자에게 가해지던 아주 많은 종류의 폭력의 기억…. 주먹질만큼이나 잔인한 폭력은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무시 또는 멸시라는 이름의 폭력. 전태일이 떠난 뒤 50년, 내가 주먹질과 멍살잡이를 당한 그 날로부터 40년,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정말 달라졌는가? 전태일이 되살아난다면, 그래, 이제 세상이 달라졌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왔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아니, 그냥 모르겠다. 제발 좀 그만 듣고 싶은 그 수많은 ‘김용균들’의 비극에도 ‘재해 기업 보호법’으로 둔갑해 버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보고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 누가 있는가.

[T-5-2]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1970년 11월 13일, 어느 청년이 불꽃이 되었다. 세상은 그 사이에 청년이 원했던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그 청년을 기억하는 건 모두의 의무다. 어린 미싱공들을 착취해 잘 살게 된 자들이 신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그 시절의 대통령 각하의 딸이 다시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된 시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3.11.13. 12:46]

참 짧게 썼구나. 전태일의 43주기였던 그 날,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불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불가능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일이 벌어진 해였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목청 높여 외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에 그 해 내내 시달려야 했다. 11월 13일이 아니었다면, 전태일을 다시 기억하자는 저 짧은 냇두리도 쓰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망...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은 흔히 침묵에 빠진다. 그리고 동서와 고금에 상관없이 모든 지배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침묵이다. 실컷 떠들어 봐! 너희 천한 것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 잠자코 우리가 던져 주는 찌꺼기나 감사하면서 받아먹어... 다행이다. 이제 다시 길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이 침묵하기를 거부했기에. 한겨울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기에. 그 짧은 글을 쓰기 1년 쯤 전에 썼던 일기가 딸려나온다.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일기.

“이화동, 창신동,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골목길을 걸었다.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은 폴란드 여권을 지니고 세상을 떠도는 친구와 함께. 달동네에 얹힌 한국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니 현대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동네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설명하다 보면, 한 마디로 쪽팔린다. 쪽이 팔려도 드럽게 팔린다... 친구는 나를 위로한다. 세상에 정치와 역사를 얘기하면서 쪽팔리지 않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냐고. 그러면서 덧붙인다. 제일 나쁜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미리 절망하는 것이라고... 친구의 말이 맞다. 세상은 바뀔 것이다. 독재자의 망령이 육신을 걸치고 난리블루스 추어 대는 세상은 며칠 안 남았다. 가자! 투표장은 멀지 않다! 새 세상도 바로 저 앞에 있다!” [2012.12.11.]

다들 아는 이야기를 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1.6퍼센트라는 참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보인 숫자 싸움에서 이겼다. 두고 두고 아팠던 건 그 숫자가 이루어지는데 이화동과 창신동 달동네도 일조를 했다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내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이웃으로 살았기에 결코 부자로 살지 않았다는 걸 내가 너무도 잘 아는, 동숭동 달동네의 할머니가 그 날 아침, 투표장으로 가는 나를 불러 세워 두 손을 잡고 당부했다. 독재자의 딸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셋방살이로 살다가 지어진 지 육십 년을 훌쩍 넘겼을 낡고 좁은 달동네 단층집 한 채를 겨우 당신과 외아들 몫의 재산으로 만든 분이 왜 독재자의 딸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하셨을까. 독재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국모가 돌아가셨다’라고 외치는 텔레비전 중계를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오래 전의 시간에 여전히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다. 내 어머니와 형님 아우 하

며 오십 년 세월을 이웃사촌 자매로 살아오신 할머니를 아무렇게나 태극기 할매라고 부를 수는 없기에 참 어려운 질문이다. 질문 하나가 이어진다. 할머니는 전태일을 알고 계셨을까, 또는 기억하고 계실까….

1970년에 동숭동에 살았던 할머니의 귀에 청계천에서 분신했던 전태일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동숭동에도 ‘제품집’으로 불렸던 소규모 봉제 공장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하긴 나 역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태일을 몰랐다. 달동네의 아주머니들에겐 전태일의 죽음이 끝내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 않다면 홀몸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삶이 그 가난의 기억을 품고 살기엔 너무 고단했던 건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듯, 할머니도 독재자 덕에 이만큼이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신화를 받아들였던 건지도 모른다. 거짓 신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 신화가 달콤한 위로를 건네기 때문이다. 홀연히 나타나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 영웅의 신화에 기댔 때 삶이 조금은 덜 고단해지기 때문이다. 전태일과 전태일이 풀빵을 사 줘야 했던 여공들이 말 그대로 피와 땀을 바쳤기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을 여대생을 옆에 앉히고 일본 군가를 부르며 양주를 마셨던 독재자 덕분이라고 믿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이들을 태극기 부대라고 비난하고 멸시하기는 얼마나 쉬운 일인가. 진짜 영웅은 그 독재자들과 재벌들이 아니라 전태일과 전태일의 풀빵으로 허기를 면해야 했던 그 여공들이라는 진실을 그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24시간 내내 트롯을

틀어대며 그 사이사이 가짜 뉴스를 용단 폭격처럼 퍼붓는 저 사이비 종편에서 채널을 돌리도록, 그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곤조곤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그 이야기를 그이들의 귀에 전할 수 있는가. 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부끄럽다. 모르겠다를 연발하는 나. 이렇게 부끄럽다를 남발해 놓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릴 나… 그래도 다행이다. 적어도 11월 13일이 되면 전태일을 기억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 낸 사람들이 있어서.

[T-5-3]

기억하기 위하여

“영원할 것이라 믿지 마라. 하룻밤 사이에도 세상은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 이화마을 굴다리 아래, 가파른 고갯길이 더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그 모퉁이, 슈퍼 건물의 외벽에 벽화가 있었다. 그 벽화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 이화마을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이란다. 그리고 그 투기의 중심에는 소위 ‘문화계 인사’(!!!!)들이 있다고 한다. 도시 괴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돈에 관한 한, 도시 괴담은 거의 대부분 도시 진실이 된다는 것을. 엇그제 굴다리를 지날 일이 있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벽화가 사라졌다. 벽화가 있던 자리엔 그저 웅덩이 그레 흰 벽이 있었다. 언제 지워졌을까, 누가 지우라고 했을까, 저 빈 자리에 어떤 벽화가 새로 그려질까, 의문형 어미는 꼬리



© JO Byoung Joon

2006년 여름에 진행된 '소의 지역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미술 사업'의 일환이었던 '공공 미술 : 낙산 프로젝트'는 조각가인 이태호(1951년~, 경희대 교수)를 총감독으로 하여 '쉬다, 잇다, 함께 어울리다'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 벽화는 서양 화가 박종해(1953년~, 경희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제작한 <봉제인, 존경의 벽>이다. 2013년에 지워져 지금은 볼 수 없다.

를 물지만 거기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 음모론이 머릿속에서 풀풀 풀려나 올 뿐이다. | 아직도 이화마을엔 동대문시장의 하청 공장들이 많다. 공장이라고 부르기에 미안할 정도로 작은, 가내 수공업 규모의 공장들이다. 집값이 두 배, 세 배로 뛰면 그 공장들은 당연히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당연히 예쁜 액세서리와 옷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올 것이다.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커피집과 파스타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다들 아실 테니 그만 하련다. |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화마을의 변화 또한 당연이고 필연이다. 하지만 미싱공들에게 바치는 벽화마저 지워야 했을까. 이화마을의 과거, 그리고 아직 남은 현재가 그렇게 지워야 하는 과거요 현재였던가. 그래야 앞으로 우아하게 파스타와 와인과 커피를 즐길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 서둘러 하드를 뒤졌지만 내가 확인한 결과는, 제대로 카메라에 저 벽화를 담은 적이 없다는 냉정한, 그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실뿐이었다. 그나마 폰카메라로 찍은 몇 컷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 좋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것들은 변하되 이어져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직도 미싱공들은 여전히 이화마을과 충신동과 창신동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있단 말이다. 여전히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말이다. 삼성의 하청업체 A/S 기사는 어린 딸을 두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야 하고, 인천공항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들은 화장실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밥 먹을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단 말이다. 적어도 그 벽화 하나는 남길 수 없었는가 말이다.”(2013.11.13. 11:22)

덩굴 장미가 심어진 시멘트 화단 위 건물 외벽에 남녀 노동자와 미싱과 재봉실이

파란 배경색 위에 그려져 있었다. 어느 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벽화 하나. 유년의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한 동네였다. 국민학교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 이화동 그리고 충신동. 그 동네에 살았던 국민학교 동창 중에는 정규 중학교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1973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서울 시민의 아이들’에게 벌어졌던 일이다. 국민학교 졸업식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친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모퉁이를 돌아 낙산 언저리에는 정규 중학교를 가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민학교’가 있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국민학교 동창 친구들 중엔 그 공민학교에 다닌 친구도 있었을까. 전태일처럼 낮에는 미싱공으로 일하다가 야간 학교에 가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며 행복해했을까.

블로그 일기를 작성했던 시간을 확인해 보니, 사라진 미싱공 벽화에 대한 이야기와 청계천 버들다리의 전태일 흉상 이야기를 한 시간 남짓한 간격을 두고 하루에 썼다. 2013년 11월 13일,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을 횡불로 만들어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그 너무나 자명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진실을 몸으로 말해야 했던 그 날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이 모두 나 같은 마음은 아니었구나. | 예쁜 벽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떠들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테이크아웃 음료잔을 아무 데나 버리면서 동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 버스에서 쏟아져 언덕길을 올라왔다. 잉어가 그려진 계단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모습도 목격했다. 제품집들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들이 들어섰다. 언덕 꼭대기의 전망 좋은 집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카페로 변했다. 들려온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기획 부동산’이 이화동 달동네에 빨대를 꽂았다. 건디다 못한 주민들 몇 명이 한밤에 페인트를 들고 나와 벽화를 지웠다. 종로구의 ‘재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이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벽화가 처음 그려진 해로부터 10년째였던 2016년의 일이다.

가난이 관광 자원이 되었다. 그 가파른 계단을 고단한 노동에 지친 몸을 끌고 올라와 휴식을 취해야 했던 주민들의 삶이 눈요깃거리가 되었다. 배려를 이야기할 수준을 넘어 무례의 극한을 보여 준 가난 관광이었다. 벽화가 지워지고, 사드 미사일에 빨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자 이화동은 다시 조용해졌다. 전망 좋은 언덕 꼭대기의 카페들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찾아오지만, 골목길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카페들은 몇 년째 비어 있다. 제품집들이 있던 시절보다 더 쓸령해진 이화동.... | 아주 한심한 상상을 하나 해 본다. 전망 좋은 이화동 꼭대기 카페에서 커피와 와인과 맥주를 마시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는 상상. 전태일을 아시나요? 한심한 상상이 아니라 불온하고 불안한 상상이다. 휘황찬란한 서울의 야경을 즐기러 온 청년들에게, 좁고 가파른 계단과 골목을 즐기러 온 청년들에게 그 무슨 버릇없는 ‘라떼 폰대’의 질문일 것인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게 된 청년들에게, 월급이 아니라 시급에 삶을 바치게 된 청년들에게, 그런 참혹한 세상을 만든 386, 486, 586 세대가 무슨 자격으로 전태일을 아냐고, 왜 전태일처럼 연대하려 하지 않느냐고 훈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소확행’에, ‘탕진잼’에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언다대고!

차라리 벽화에 페인트를 부은 그 주민들처럼 우리도 전태일의 기억은 먼 옛날의 에피소드로 묻어야 할까. 전태일의 기억이 아니라도 이미 삶이 지독히 껍딱하고 힘겨운 청년들에게 그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라고 내버려 두는 게 옳을까. 청년들이 기성 세대의 훈계와 교훈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아직 전태일처럼 가진 자들에게 이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죽어 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로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세상이 지금 여기의 세상이다. 영하 18도 혹한의 비닐 하우스 숙소에서 힘겨웠던 이주 노동자의 삶을 접어야 했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도 있다. 아직 이 사회엔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많다.

우리는 아직 전태일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전태일이 몸으로 만들어 비춰 준 그 빛 덕에 그래도 이만큼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더 빚을 갚아야 한다. 전태일에게 진 빚, 전태일의 뜻을 지켜 낸 청계피복노조의 여공들에게 진 빚, 아들을 그렇게 잃고도 꺾끗이 일어서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준 고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어머니들에게 진 빚, 1년에 하루라도 전태일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땀흘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 어찌면 다시 오십 년이 지나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어찌면 영원히 우리 사회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일지도 모른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에게도 그 빚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그대들이 이화동 전망 좋은 카페에서 라떼를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전태일과 전태일을 기억한

사람들이 흘렸던 피와 땀이 있다. 전태일을, 평화시장의 여공들을, 이소선 어머니를 기억해 다오....

[T-5-4]

풀빵 하나를 얻어 먹자

겨우 몇 가닥의 실을 풀었을 뿐인데 눈이 아프다. 어깨 허리 손목이 다 아프다. 그런데 실뭉치는 아직도 뒤틀린 채 그대로다. 그래,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자. 성급하게 풀려고 들면 더 엉킬 뿐이라는 걸 알 나이는 되지 않았는가. 잠시 실은 내버려 두자. 아프고 서럽고 속 터지는 이야기들도 잠시 밀어 놓자. 앞으로 오래오래 더 이어서 해야 할 이야기다. 잠시 눈을 들어 하늘도 보고 허리도 펴자. 밖으로 나가 구름빵이라도 한 대 먹자. | 날이 밝았구나. 청계천 전태일 다리엔 이미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정신없이 다니고 있겠구나. 참 쓰잘데기 없고 영양가 없는 냇두리를 늘어 놓느라고 밤을 새웠구나. 이 허기를 어떻게 달래지? 그래, 담배는 그만 피우고 풀빵을 먹자. 집에 갈 버스비를 털어 어린 시다 동생들에게 전태일이 사 줬다는 그 풀빵을 나도 한 개 얻어 먹자. 목이 메지 않게 따뜻한 물 마시며 먹자. 이 풀빵을 기억하자. 이 풀빵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바보 같은 냇두리를 읽어 준 당신에게도 이 풀빵을 건네고 싶다. 버스비가 없으면 어때요, 당신 입에 풀빵 들어가는 것만 봐도 걸어갈 힘이 나는 걸요. 같이 걸어가 주실 거죠? 건다가 누군가 배고픈 이를 만나면 그이에게 당신도 풀빵 한 개를 건네 주실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T-5-5]

전태일기념관이 생겼다

전태일다리를 지나 청계천을 걷는다. 고가 도로가 있었던 시절, 그 거리는 얼마나 어두웠던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진격이 다시 청계천에 고층 건물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래도 청계천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건 얼마나 다행인가. 그 청계천에 전태일기념관이 생겼다. 다행이다. 전태일을, 전태일이 사랑했고 지키려 했던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자들을,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공간에서, 전태일의 시간을 다시 만난다. 고단한 삶의 기록들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꾸었던 꿈의 기록들이기도 하다. 그 소중한 기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50년 동안 전태일의 기억을 지켜 온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이 공간을 찾을 다음 세대가 그 기억을 지켜 갈 것이다. 기억은 우리의 힘이다. 씨앗을 지키듯 기억을 지켜야 한다. 전태일을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 전태일일 것이기에.

